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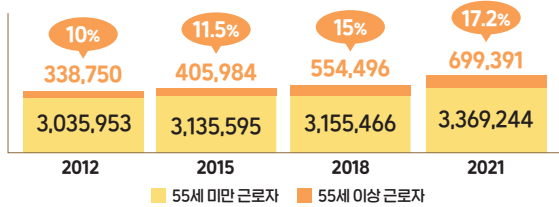
장년근로자의 안전보건 (건물관리원)



1 장년근로자란?

50세 이상인 사람으로서
취업하고 있거나
취업의사가 있는 사람을 의미

산업별
55세 이상
고령노동자
점유율(%)
(통계청 2022)



※ 「고용상 연령차별금지 및 고령자 고용촉진에 관한 법률」은 고령자를 준고령자(50세 이상 55세 미만)와 고령자(55세 이상)로 정의하나, 고령자라는 용어의 의미가 노동시장에서 은퇴해야 할 사람이라는 인식이 높고 현재의 사회통념 및 기대수명('20년 기준: 83.5세)과 많은 차이가 있음을 고려하여 동 자료에서는 장년(長年) 근로자라는 명칭을 사용함

2 장년근로자의 특징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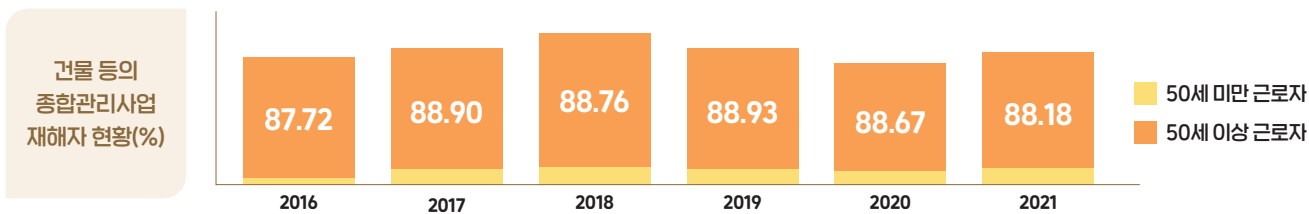
장년근로자에게는 단순한 기능 저하뿐 아니라 신체 기능과 생리적 반응 저하에 따른 정신적 부담도 같이 나타나며 신체 능력 중에서는 시력과 평형감각이 매우 저하됨

신체 능력	특성	주요 대처방안
시각	노화에 따른 시력 감퇴로 행동 특성 변화와 시야가 좁아지는 현상	조명기구를 늘이고 색채를 활용하여 보기 쉽게 표시하거나 문자를 크게 표시
청각	노인성 난청으로 인한 청각 약화 현상이 나타나며, 약 50세를 지나면 대화 시 이해도가 떨어지고 작은 소리는 잘 알아듣지 못하게 됨	위험경보는 램프와 벨을 2중으로 하고 소음수준을 최소화 함
촉각	나이가 들면 촉각을 통해 신변의 위험이나 응급상황을 깨닫기 어려워지므로 위험에 빠질 수 있음	날카로운 부위는 색을 활용하여 구별토록 함
움직임 및 힘	순발력 측정 시 60세 전후의 저하비율은 30세 대비 32%, 20세 대비 40%	올바른 작업 자세 교육 진행
집중력	두 가지 이상 과제에 각각 주의를 집중해서 처리하는 일에 대한 수행력이 떨어지며, 70세 이후로는 전반적인 집중력 자체가 급속도로 저하	작업절차를 단순화 시키고 단계별로 지시하며 위험요소에 대해 상세히 설명
학습능력	과제 수행이나 작업 성취 능력은 저하하지만, 학습기간과 반응 기간의 길이가 충분한 경우 경험적 학습의 증진은 더 많이 일어남	숙련된 경험을 바탕으로 반복적인 교육과 훈련을 통해 신기술을 습득케 함
기억력	최근 기억의 상실이 잦음. 단순한 암기력보다 논리적 기억능력이 더 크게 감퇴되고 시각 정보보다 청각 정보에 대한 기억이 더 오래 감	작업내용을 명확히 하여 가능한 구체적으로 지시 등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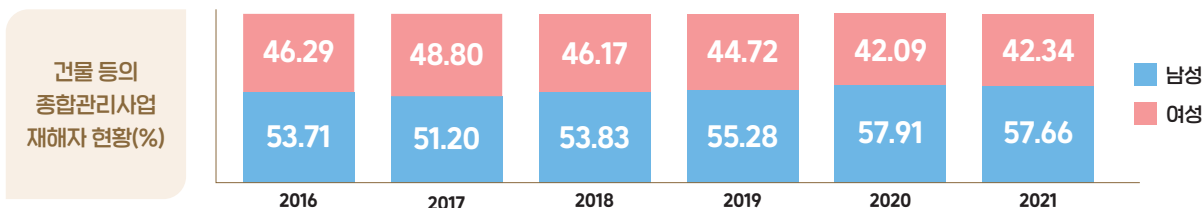


3 건물 등의 종합관리사업(이하 건물관리업) 장년근로자 재해 현황

건물관리업 종사 50세 이상 장년근로자의 재해가 전체 재해자의 80%이상을 차지하는 등 장년근로자가 차지하는 비중이 높음



건물관리업 종사 재해자 성별 현황



재해 유형별 재해율 (2021년, 전체 3,252명)



4 건물관리원의 주요 업무와 재해사례

- 주요업무**
- 건물 내·외부 순찰
 - 각종 시설물 유지 및 관리
 - 출입자 통제
 - 건물내부 및 주변 청소

넘어짐	재해내용	슬리퍼를 신고 야간 순찰 중 지하계단을 내려오면서 실족하여 넘어짐
	발생원인	미끄러운 슬리퍼를 착용하였으며 조명이 충분히 밝지 않음
떨어짐	재해내용	아파트 11층 복도에서 A형 사다리를 이용하여 복도 센서등 안정기 교체 작업 중 사다리 위에서 몸의 균형을 잃고 아래 화단으로 떨어짐
	발생원인	사다리 등 작업발판을 불안정하게 설치하고 작업 실시
근골격계 질환	재해내용	건물 지하에 있는 물건을 청소를 위해 옮기는 과정에서 허리를 다침
	발생원인	올바르지 않은 자세로 무리하게 중량물을 옮김
베임	재해내용	아파트 주변 나무절단 작업 및 전지 작업 중 작업하던 낮에 실수로 왼쪽 손목부위를 베임
	발생원인	전지작업 전용 수공구 미사용, 부적절한 작업자세

✓ 미끄러운 바닥 또는 걸림에 의한 넘어짐

- 이동통로에 조도 75럭스 이상의 채광 또는 조명시설 설치(조명시설 확보 불가 시 휴대용 조명기구 사용)
- 계단 끝부분에 미끄럼방지조치(고무패드, 돌기부분 등)
- 미끄럼 방지 작업화 착용 및 작업 전 신발끈 등 복장정리
- 문턱은 눈에 잘 띄고 색으로 도색하거나 턱이 없는 구조로 개선
- 재활용품 정리 시에는 비닐봉지 등 미끄럼 유발물질을 먼저 분리

✓ 떨어짐

- 떨어짐 위험이 있거나 고소작업 시 작업환경에 적절한 작업발판 또는 고소작업대 사용
- 사다리 작업이 불가피 할 경우 2인1조 작업
- 전지작업 시 안전한 작업위치에서 개인보호구(안전모, 안전대 등)를 착용하고 고지톱, 고지가위 등 적절한 도구를 사용
- 전구 교체작업 시 안전모, 보안경 등 개인보호구를 착용

✓ 근골격계 질환

- 평상시 및 작업 전·중·후 스트레칭을 실시하여 근골격계의 유연성 및 근력 증가
- 과도한 무게로 인하여 근로자의 목·허리 등 근골격계에 무리한 부담을 주지 않는 적정 무게 이하로 작업
- 적정 무게를 초과하는 중량물을 취급하는 경우에는 2인1조로 운반하거나 대차 등 보조기구 활용
- 중량물 취급 시 발은 어깨넓이로 벌리고, 무릎을 굽히고 허리를 편 상태에서 다리 힘을 사용

✓ 베임

- 수공구는 작업용도에 맞게 사용하며, 용도 이외는 사용하지 않음
- 수공구 작업자의 안전을 확보하기 위한 작업장소의 이상 유무 확인
- 보호 장갑 등의 개인보호구를 착용하며 집게 등의 보조도구 사용

✓ 감정노동 관리

- 민원 및 다툼이 발생했을 때 응대할 수 있는 매뉴얼 마련 및 교육
- 주민들이 과도한 민원을 요구하지 않도록 객관적 기준 안내 및 관련 정책을 눈에 잘 띄는 곳에 게시

장년근로자를 위한 안전한 사업장 만들기

- 표지나 글씨는 크게 게시하고, 정보 전달은 듣는 방법에서 보는 방법으로 변경
- 고소작업, 심야작업, 중량물 운반 작업 배치를 가능한 한 배제
- 고혈압, 당뇨 등 기초질환자의 사후관리를 강화하고 주기적으로 안전교육 실시
- 교대작업으로 인한 수면장애 예방 철저